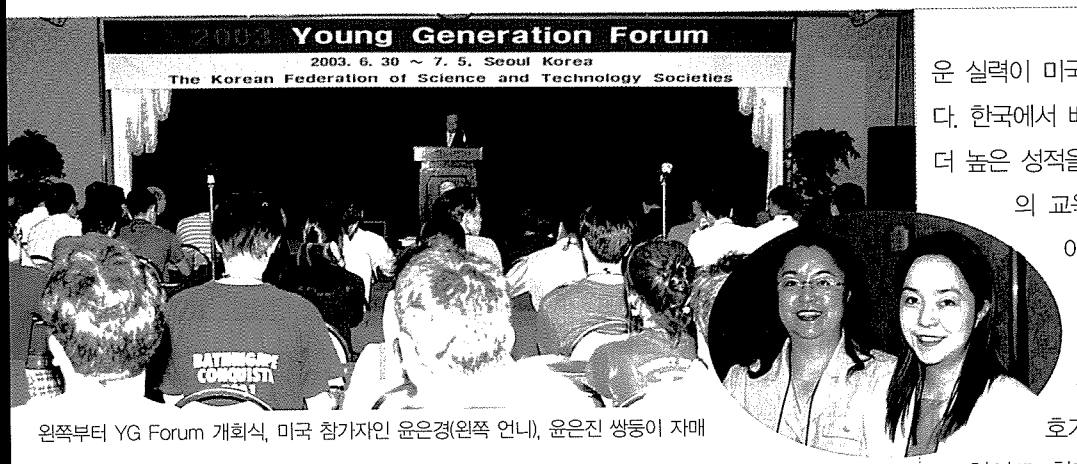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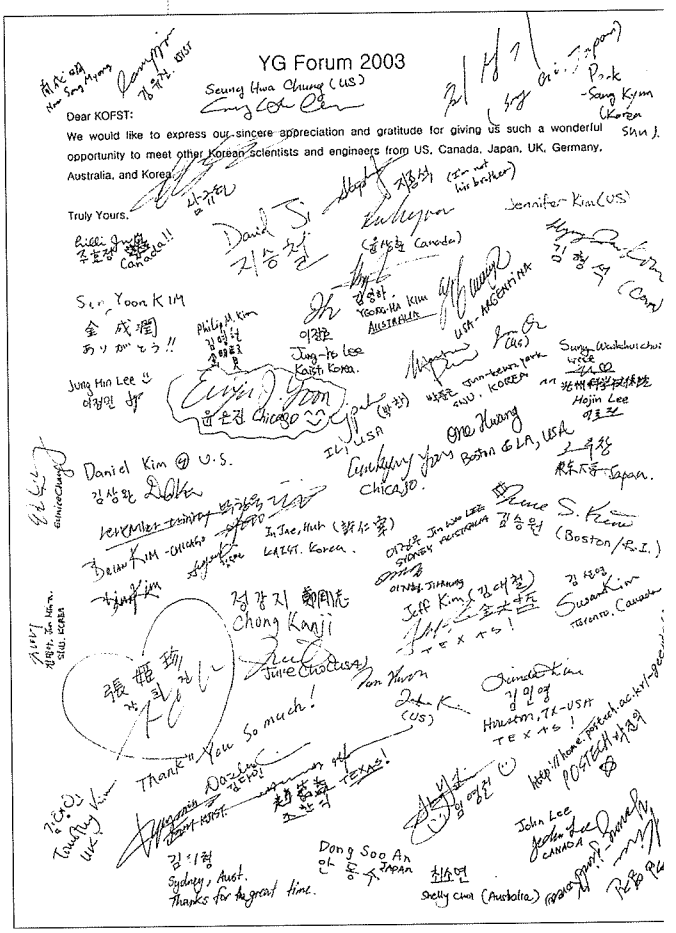


왼쪽부터 YG Forum 개회식, 미국 참가자인 윤은경(왼쪽 언니), 윤은진 쌍둥이 자매

제2회 Young Generation Forum 개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金始中)는 국내외 젊은 과학도들간 21세기 과학기술 비전에 대한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국 과학기술 발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내외동포 전문가들 간에 네트워킹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상호 교류에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제2회 Young Generation Forum'을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과학기술관련 전공 학부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6개지역(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호주) 1.5세대 이후 동포 청년과학기술자 74명과 국내 청년과학기술자 37명 총 111명이 참여했다. 이틀간에 걸쳐 '젊은 과학도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21세기의 과학기술에 대한 비전'라는 주제로 토론이 있었으며, 7월 2일 오후6시에는 이용경 KT 사장, 정순원 현대차 사장, 여종기 LG화학기술원 사장, 정선휘 삼성종합기술원 부사장를 초청하여 각 기업의 경영철학을 듣고 젊은 과학도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CEO / CTO Forum 및 Dinner의 자리도 가졌다. 7월 3일부터 5일까지는 POSCO,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현대자동차의 산업시찰과 경주 문화 관광의 시간도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온 윤은경(28세, Illinois대, 토목환경공학 석사과정) 윤은진(Northwestern대, 토목환경공학 석사과정) 쌍둥이 자매는 중3때 이민가서 1994년에는 각 주별 1~2명씩만 받는 젊은 지도자상(National Young Leaders Conference)을 일리노이즈주 대표로 받아 백악관에 초대되기도 한 학생이다. 또한 시카고 수학대회에서는 두자매가 1, 2등을 독차지하는 등 여러 상을 받아 미국 매스컴에 많이 소개된 바 있다. 동생 은진씨는 한국서 배운 실력이 미국에서 유명해졌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배운 실력으로 미국에서는 더 높은 성적을 낼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러한 것을 자신들이 입증해 보였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미국은 누구에게나 대학의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돈이 없어도 학자금 대출, 장학금제도가 잘되어 있어 공부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부럽다고 전하는 두 자매는 공부하느라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아쉬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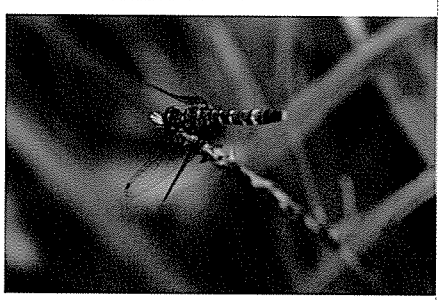
YG 포럼 재외 참가자들의 기념 서명

"배우자는 모국에서 찾겠다"는 희망도 밝혔다. 이외에도 영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생의 부모가 찾아와 영국에서 참석한 학생들과 상담하는 등 에피소드와 즐거움이 넘치는 행사였다. 김시중 회장은 내년에는 확대하여 중국, 러시아 교포들도 초청하겠으며 더욱 내실있는 행사로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공모전 개최

전주컴퓨터게임 엑스포 조직위원회(위원장 송기태)는 웹사이트(www.jcge.or.kr)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게임의 기획과 제작, 캐릭터 제작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작품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문의 조직위원회 063-282-2008

국내 최대 꼬마잠자리 서식지 발견



울산 생명의 숲(대표 정우규)의 산지습원 탐사팀은 경남 산청군 신안면 둔철산(812m)에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산지 습원을 발견하였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식물군락과 꼬마잠자리가 발견되었다. 크기가 1.5cm에 불과한 꼬마잠자리는 보호대상곤충류 제1호로 지정되어 있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추진

현재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이 내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3일 "남북한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통해 신뢰기반을 조성한 뒤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기분야 협력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 사업은 대부분 민간 차원에서 협력 합의가 이뤄진 뒤 과기부가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구확대 추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7월 10일 과학기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 분류 체계 개편과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 확대 ▲채용제도와 운영 개선 ▲인사관리 제도 운영 개선 등 3개 분야 19개 대책을 내용으로 담은 '이공계 공직 진출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지난 6월 22일 의장을 대통령이, 사무처장을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맡고 민간위원을 현재의 11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10월 이 기구를 정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3기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출범

아시아 · 아프리카 등 정보기술(IT) 발전이 뒤쳐진 나라 주민에게 인터넷 교육 등 봉사활동을 펼칠 '제 3기 해외 인터넷 청년 봉사단'이 출범,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교수 · 대학생 · 일반인 등 44개 팀 174명으로 짜여진 이번 봉사단은 7월부터 8월까지 세계 30개 나라에 파견돼 팀별로 15~30일 동안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문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2-3660-2661, wschoi@kado.or.kr

IT분야 대학(원)생 인턴쉽에 6억 지원

정보통신부는 IT분야 국내 대학(원)생이 재학중에 IT관련 기업체 등에서 실무능력과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턴연수를 지원하여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IT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6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수행기관으로는 IT관련 학과가 설치된 4년제 대학(원)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www.ithuman.or.kr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3

과학의 도시 대전에서 여름방학을 겨냥한 과학 축제가 펼쳐진다. '전환과 이동 Shift'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 동안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 2003"이 개최된다. 문의 042-866-5114 ST